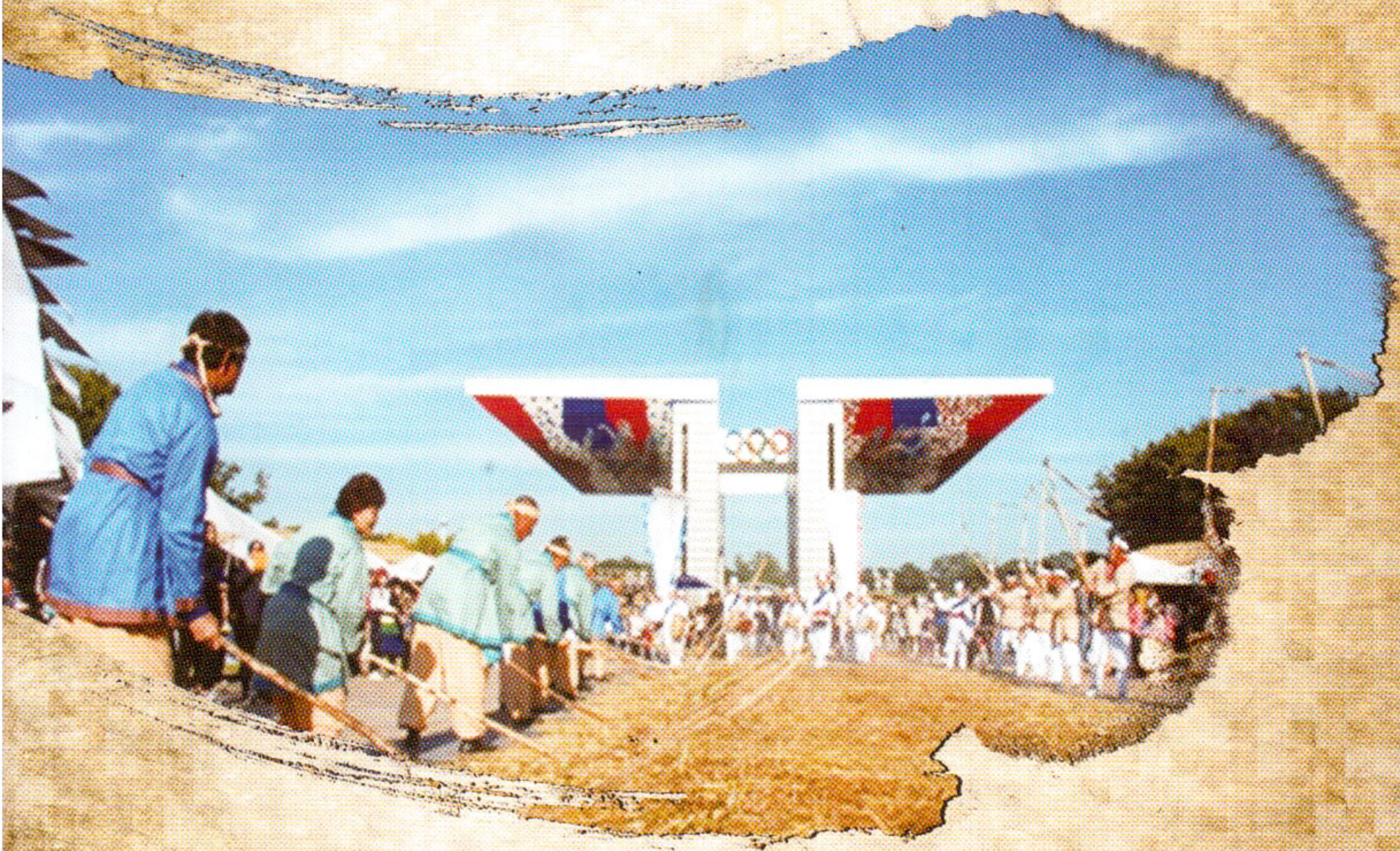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하추리 도리개장 소리

장 소 : 평창군 용평체육공원
기 간 : 2017년 9월 7일 ~ 8일



인제군



인제문화원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유래

- 하추리에서 마을청년들이 죽은 아들을 대신해 노부부를 도와 울력할 때 부르던 소리 -

하추리는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촌이다. 산촌 하추리는 대대로 산에 의지해서 잡곡을 심어 먹고 살았다. 1970년대 화전정리 전까지는 화전이 마을의 유일한 생산터전이었다. 험악한 산중에 살다보니, 마을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야 했다. 울력이 발달한 원인도 마을의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추리 사람들은 산촌에서 힘든 일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 그에 어울리는 나뭇의 소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소리꾼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 중 근대에는 이미 작고한 소리꾼 조동빈(1950년대 작고)씨가 있었고, 조동빈 씨를 이어 윤길용(1990년대 초 작고)씨가 있었다. 이 분들은 마을의 모든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소리를 했다.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와 같은 의식요, 도리깨질소리와 같은 노동요, 타령조의 유희요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이런 소리를 윤길용 씨는 당시 30대인 김군호(남, 59, 2017년) 씨에게 전수를 하였다. 그런데 도리깨질소리는 고 윤길용 씨가 이 소리를 전수하면서 선대부터 들었던 유래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유래의 요지는 이렇다. 하추리에 옛날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화전을 해놓고 거두지 못하고 석이를 따다가 죽었다. 노부부는 겨울이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데도 거두미를 못했다.

이를 본 마을 청년들이 울력으로 노부부의 추수를 해주었는데, 그때 젊은 아들의 영혼을 달래며 회다지조로 도리깨질소리를 하며 타작을 해 주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 마을에 전승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축제인 '도리깨축제' 때 공연으로 승화하였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특색

- 의식요[회다지소리]와 노동요[타작소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절한 곡조의 소리마당극-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내설악 한계령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산중마을 하추리 일대에서 부르던 노동요(勞動謠)이다. 자식을 잃은 노부부를 도와 울력으로 곡식을 털며 슬픔을 달래던 이 고장 특유의 소리와 절차이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회다지곡조의 리듬으로 불리다가 유희요조로 바뀌어 부른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화전민들의 애환과 울력의 마을공동체의식이 담긴 절차로 진행 된다. 노동력을 상실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마을축제적 성격의 노동집약을 보여주는 소리의 형태를 취한다.

이 때문에 도리깨질소리는 도리깨로 곡식을 터는 소리를 시작으로, 턴 곡식을 키질하는 소리, 키질로 정제한 곡식을 절구로 찜는 소리, 이웃에서 떡을 해와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을 잃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부부의 슬픔을 달래서 마을의 노동축제로 승화 시켜 나가는 소리로 이어진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 사설은 회다지곡조의 애절한 노동요로 자식을 잃은 노인을 위로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참의미를 담고 있다.

출 연 진

출 연 인 원 57명 **조사 및 시나리오정리** 이학주.한승윤

고증 및 소리꾼 김군호 (故윤길용선생으로 부터 사사하다) **단 장** 김 재 노

감 독 박 재 균 **연 출** 최 윤 필

시나리오 구성 박재균, 김재노, 김군호, 박봉수, 강성애

도리깨마당(소리꾼:김군호)

백의조 : 박재균

| | |
|----|-----|
| 1 | 김민승 |
| 2 | 김철규 |
| 3 | 한은자 |
| 4 | 안광훈 |
| 5 | 차명회 |
| 6 | 김재노 |
| 7 | 박준수 |
| 8 | 박재균 |
| 9 | 박충균 |
| 10 | 김진규 |
| 11 | 김근호 |
| 12 | 정정애 |
| 13 | 전기관 |
| 14 | 조일규 |
| 15 | 박배근 |
| 16 | 박봉수 |

홍의조 : 윤종욱

| | |
|----|-----|
| 1 | 김동학 |
| 2 | 최병만 |
| 3 | 정정옥 |
| 4 | 전진우 |
| 5 | 박수만 |
| 6 | 안창만 |
| 7 | 윤종욱 |
| 8 | 박도현 |
| 9 | 심도섭 |
| 10 | 조혜옥 |
| 11 | 이창우 |
| 12 | 신혜옥 |
| 13 | 장병호 |
| 14 | 한복성 |
| 15 | 김영달 |
| 16 | 강성애 |

두노인

| |
|-----|
| 구연직 |
| 조금자 |

사 물

| | |
|----|-----|
| 1 | 이순자 |
| 2 | 박병철 |
| 3 | 이춘화 |
| 4 | 노미향 |
| 5 | 김순녀 |
| 6 | 박광임 |
| 7 | 박광순 |
| 8 | 정순호 |
| 9 | 김옥수 |
| 10 | 김공집 |
| 11 | 이계춘 |
| 12 | 김순자 |

만 장

| |
|-----|
| 김춘수 |
| 김종환 |
| 한평수 |

싸 리 비

| |
|-----|
| 김영모 |
| 박병래 |
| 김삼봉 |
| 구연직 |

키 질

| |
|-----|
| 윤옥순 |
| 김옥순 |
| 조옥순 |
| 조금옥 |
| 장화춘 |

절 구

| |
|---------|
| 장화춘.윤종욱 |
| 정정애.최병만 |
| 신혜옥.차명회 |
| 한은자.조일규 |
| 정정옥.박도현 |

떡 메

| |
|---------|
| 박재균.윤종욱 |
| 김재노.김철규 |
| 정정애.조혜옥 |
| 한은자.심도섭 |

◇ 도리깨질소리 사실

- 소리사실이 도리깨질이 끝날 때까지 이어짐으로 상당히 길게 불러짐. 소리내용은 고정되어 있으나 내용 자체가 일꾼들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이 많이 적용된 상황임 -

에허어라 당쇠. 에허어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노당쇠님. 힘을 내어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좌우연계를 넘어가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을 까불어 물에 불려. 에루화라 당쇠.

삶은 콩을 메주 썰어.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추장 담가 먹어본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박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빌어 콩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에 늘어서면 저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저기 저 당쇠 무얼 하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조마당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내어. 조마당을 때려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이 여기 오셔. 조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조마당을 때린 뒤에 까불어 날려 씻은 조를 인절미를 빚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요 마당은 팔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팔마당을 때려날려. 에루화라 당쇠.

동지선달 기나긴 밤을.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팔죽을 쭈어 모아놓고 이웃사촌과 나눠보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어서 빨리 때리다가.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앞을 보고 들어가요.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정리마당.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때려 얹어 뒤집어 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저당쇠님. 좌우행렬을 뒤집어 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오늘 같이 좋은 날 언제 언제 또 있을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날이 또 있을 꺼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강원도라 인제군에 이다지도 깊은 산중에 오늘 같이 여러분이 고이고이 살고 있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행렬을 보고 갈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대한민국 강원도에 인제군이 뚝 떨어졌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진행사가 어딜 갔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번 마당은 키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심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경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이 이쁘게 까불어주소. 절구질로 넘어간다.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박당쇠님. 수수 방아를 찧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임당쇠님. 수수방아를 찧어 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님.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야. 저당쇠야. 우리 실컨 놀고 갑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떡을 쳐서 인절미를.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떡을 쳐요.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인절미를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에허야 당쇠야. 때리고 부수고 놀아보세.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여보시오. 박당쇠님. 소리로 놀아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 후렴의 당쇠: 마당쇠의 준말로 사용한다. 원래는 회다지소리에서 불리지던 '에허어라 달호'에서
 도리깨질소리로 바뀌면서 '에루화라 당쇠'로 후렴이 변했다. 첫 소리에서 나오는
 후렴과 뒤의 후렴이 다른 원인이다.



◇ 도리깨질소리에 얽힌 이야기

- 하추리 토박이 고 윤길용 소리꾼의 구술로 작성된 이야기 임 -

조선조 때였다. 하추리에는 마을 일이면 빠지지 않고 내 일처럼 하던 박 씨 부부가 열아홉 장성한 아들 돌쇠와 같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집이지만 늘 서로를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은 누구 못지않았다. 자신이 굶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뭐든지 주었다.

돌쇠는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 때가 되자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빨리 돈을 모아 장가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였다. 돌쇠는 집안이 가난해서 논밭이 없는 터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남의 허드렛일을 해주며 살았다. 그러다가 마침 그해는 화전을 일구어서 콩과 메밀과 팔과 수수를 많이 심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에 늘 흡족해 하며 돌쇠는 밤낮을 모르고 일을 했다.

어느덧 하지가 지나고 비가 촉촉하게 내린 하추리 매봉산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석이버섯이 곱게 피어났다. 돌쇠는 크기도 크려니와 모양도 좋아서 절벽에 피어난 석이를 따면 꽤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매봉산에 올라서 석이버섯을 따올 게요.”

“얘야, 조심 하거라.”

“매일 가던 곳인데요 뭐.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부모님에게 석이버섯을 따러 오겠다고 하고 매봉산으로 향했다. 돌쇠는 석이버섯을 많이 따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장비를 챙겨 들고 흥얼대며 매봉산으로 향했다. 매봉산 절벽에는 석이버섯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빨리 따서 가야겠다.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돌쇠는 밧줄을 절벽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매고 망태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밧줄을 풀며 아래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석이버섯은 많았다. 돌쇠는 신이 나서 밧줄을 잡고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석이버섯을 따다. 그때였다.

“툭!”

밧줄이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걸려 움직이면서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석이버섯을 더 따려고 여러 곳에 옮겨 다닌 것이 화근이 되었다. 밧줄은 금방 터지고 말았다. 돌쇠는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박 씨 부부는 순식간에 다 키운 아들을 잃고 말았다. 열아홉 젊은 청년은 장가도 들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찌나? 아이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늘은 참 무심도 하시지.”
 졸지에 아들을 잃은 박 씨 부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하루 이틀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사는 재미가 없이 매일 슬픔에 젖어 하루
 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할 시기가 되었다. 하추리 산골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싸늘한 가을이 다가왔다. 집집마다 논밭에 널려있던 곡식을 거두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돌쇠와 친구인 김수기가 동네사람들에게 의견을 내었다.

“내일 돌쇠네 화전밭 울력을 하면 어떻겠소?”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지계를 지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심전심이었다고나 할까. 김수기의 말 한마디에 아침 이른 시간에 동네 젊은이들은 박 씨
 부부의 아들 돌쇠가 심어놓은 화전에 오를 것이다. 울력을 할 참이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마음이 통했나 보네. 힘껏 베어서 지고 가세.”

마을의 젊은이들은 저마다 콩과 메밀과 팥과 수수를 베어서 지계에 짚어졌다. 돌쇠의 부모가
 살고 있는 마당에는 금방 나락으로 가득했다. 젊은이들은 콩을 널어놓고 도리깨질을 했다.
 그때였다. 동네에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잘 하는 소리꾼 김 노인의 소리가 시작되었다.

“에허어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슬픈 노랫가락이 흥겨움을 더하여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은 김 노인의
 소리에 맞춰 후렴을 하면서 더욱 힘차게 콩을 털었다.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도리깨질에 맞추어서 소리는 이어졌다. 박 씨 부부는 슬픈 회다지곡조로 흘러나오는 도리깨질
 소리를 들으며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동네 아낙들은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울력을 하는 젊은이들과 박 씨 부부에게 주어 나누어
 먹었다. 그 후 하추리에는 울력의 전통이 이어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가 전승되고 있다.(<하추리의 울력전설>)

